

4/29/18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6 장 1-16 절

-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절관주]** 행 18:18
- (롬 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절관주]** 빌 2:29
- (롬 16: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 (롬 16: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 (롬 16: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절관주]** 고전 16:19
- (롬 16: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 (롬 16: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절관주]** 롬 16:11, 롬 16:21, 갈 1:22
- (롬 16: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 (롬 16: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 (롬 16: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절관주]** 고후 5:17, 고후 12:2
- (롬 16: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 (롬 16: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 (롬 16: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 (롬 16: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롬 16: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롬 16: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절관주** 롬 16:4

본 장은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쩍 훑어보고는 그냥 넘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없이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긴 이름들 하나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세상에 왔다가 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뽑혀서 성경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도 영광된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신문에만 나와도 자랑스러워서 기념해 두려고 오려서 스크랩을 해 놓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주님의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봅니다.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롬 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뵈뵈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일을 수행한 이방인 자매입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9 마일쯤 떨어진 항구도시였습니다.

뵈뵈는 겐그리아에 살았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뵈뵈를 자신이 친히 추천하는 일꾼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롬 16: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롬 16: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5 전)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내가 남편보다 주의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을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왔을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간 에베소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여 시작했습니다.

(롬 16:5 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야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한 집안이 스테바나 집안이었는데 에베네도는 그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야를 본문에서 아시아로 기록한 것은 아마도 당시 아가야가 소아시아로 불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첫 열매는 누구에게나 참으로 소중한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만남 가운데 첫 열매를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기억되듯이 말입니다.

(롬 16: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곳에 언급되어진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마리아도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며 로마 교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롬 16: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테반이 순교할 때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가문에서 똑똑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다메상 선상으로 바울을 친히 찾아가
민나신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자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롬 16: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에게 쓰던 라틴식 이름이었습니다.

암블리아는 신분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롬 16: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롬 16: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도 이름으로 추측하건데 노예이었습니다.

아벨레는 유대인인데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여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도볼로는 헤롯 왕의 손자로서 그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롬 16: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깃수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개인적인 비서였습니다.

(롬 16: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드루'라는 이름은 쌍둥이에게 붙이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배나'라는 말은 우아, '보사'라는 말은 섬세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쌍둥이 자매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고 말합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나오는데 드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모두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롬 16: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힘에 부쳐 도저히 십자가 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로마 병정이 옆에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막 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본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대인 배경을 가졌는지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구경하던 중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어 붙잡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쩔수없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 갔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족 모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롬 16: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들 중에 블레곤을 빼고는 모두 노예 이름입니다.

이들 그룹은 노예 출신들이 모인 그룹인 것 같습니다.

이들도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롬 16: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네레오는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 황제 밑에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롬 16: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다 소개한 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입을 맞추며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한 이상의 이름들을 보면 로마의 귀족들과 노예들이 섞여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분들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돕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을 작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두의 수고들이 모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두의 수고들이 모여 당시 유대의 한 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약 1 세기, 100 년 만에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잡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두의 수고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채석장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석수가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자 첫 번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쪼개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일당 10 만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오”.

세 번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죽지 못해 일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상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 25: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을 작다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일한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듯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상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죽도록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